

# — EIAK 소식 —

## 제25회 한국전자전 성공리에 폐막

제25회 한국전자전이 28만명의 관람객과 12억 5,000만 달러의 수출상담 등 풍성한 수확을 올리고 지난 10월 17일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약 500명이 늘어난 6,521명의 해외 유력 바이어들과 상담구매단이 내한 해 수출입 활동을 벌인 결과 12억 5,0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한국전자전이 대성황을 이룬 것은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선진공업국들의 경기 및 투자 활성화 등에 따라 세계 6위의 국내 전자·정보산업의 활력과 성장이 예견되는 가운데 국산 제품의 높은 기술 및 품질경쟁력과 엔화에 따른 수입선 전환을 모색하려는 해외의 유력 바이어와 상담 구매단이 대거 입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한 바이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이 2,538명으로 가장 많았고 EU 등의 유럽지역이 1,680명, 미국 등 북미지역이 1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UAE·이스라엘 등 중동지역, 중남미지역과 대양주지역 그리고 남아공과 자이레 등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많은 바이어들이 찾아왔다.

또한 그동안 업계의 적극적인 시장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CIS 및 동구지역인 체코·아제르바이젠 등에서도 바이어들이 내한했으며 수단·가봉 등에서도 우리 상품을 찾아왔고 중동의 튀니지와 아프리카의 자이레에서는 해외 투자장관과 상무장관이 내한해 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산업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전자전람회를 관람키 위해 산업계, 관련기관, 학생 등이 대거 입장, 전자산업의 관심을 표명했다.

외국 바이어들의 주요 관심품목을 살펴보면 미주지역 바이어들은 카앰프·카스테레오·자동차 경보시스템 등 자동차 관련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노트북 PC·코드리스폰·계측기 등 산업용기기와 반도체, 컴퓨터 주기판, 컬러 디스플레이 등 부품분야에 관심이 집중됐다.

유럽지역 바이어들은 셀룰러 폰·인터컴·위성수신기·팩시밀리·컴퓨터 등 산업용기기와 반도체·저항기·PCB 등 부품류에, 동구권 바이어들은 TV·VCR 등 가정용기기에 상담이 활발했다.



아시아지역 바이어들은 비디오CD 플레이어, 영상가요반주기 등 영상음향기기와 공장자동화기기 등에, 중남미지역 바이어들은 계측기기·트랜시버 등 산업용기기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정용기기에, 중동지역 바이어들은 냉장고와 카오디오 분야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중국 바이어들은 HDTV에 대한 합작사업 의욕을 강하게 비쳤고 남아공 바이어들은 인턴폰·팩시밀리·노트북 PC 등 정보기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우선 HDTV 공통규격 제정부터 단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연구대상 분야와 그에 따른 연구추진 계획은 실무추진반에서 논의해 선정하기로 했다.

HDTV 공동개발분과위는 한국 측에서 한국 전자공업진흥회가, 중국 측에서 고선명TV공사가 참가했다.

HDTV 실무추진반 양측단장은 한국 측에서 상공자원부 생활전자과장이, 중국 측은 전자공업부 종합규제사 부사장이 맡기로 했으며, 내년 4월 개최되는 양국산업협력위에 앞서 북경에서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양국은 또 HDTV의 전자산업 협력에서 디지털 VCR, 비디오CD, 팩시밀리, 광전자분야 등도 HDTV 협력사업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제품 교역에 장애가 되는 각

## 한·중 HDTV 공동개발분과위원회 개최

본회와 상공자원부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고화질 텔레비전(HDTV) 분과위원회에서 양국이 HDTV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실무진들로 기술협력을 전담할 실무추진반, 이른바 워킹그룹



중 관세·비관세장벽 제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 세미나 개최

본회는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 대한 이해 확대와 산업화에 따른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세미나」를 지난 10월 19일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본회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최갑홍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단 산업화지원반장의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종합계획」과 오길록박사(전자통신연구소 컴퓨터연구단장)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가자들의 질의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갑홍 반장은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해외동향, 시범사업을 비롯한 요소기술의 단계적 개발계획 등의 설명을 통해 특히 프로토콜 등의 표준화와 관련, 향후 정부와 국내 업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금성사, 금성정보통신, 삼성전자, 대우통신, 현대전자, 한국전력공사 등 16개사의 정보통신 관계자, 전자부품연구소 주성철박사와 산업연구원 박성택 박사 등 연구계 인사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과 관련한 기기 및 응용서비스 개발문제를 비롯 표준화 문제와 민간업체의 網사업 진출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 국제 환경규제와 전자업체의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10월 21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등 관련기관 및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전자업체의 환경규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본회와 전자신문사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것인데 국제환경기구가 추진중인 PCB 및 전자부품, 반도체 등 각종전자부품의 보드별 제조공정과 설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가이드 라인 등 국제환경 규제 움직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 선진국의 동향점점 및 우리 전자산업의 구체적인 대응전략 등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산업연구원 김준한 연구위원이 「국제환경동향과 산업계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실시하고, 전자산업의 국제환경문제와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해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가 강연, ISO 14000에 대한 전자업체의 대응전략에 대해 삼성지구환경

연구소 진용 부장의 주제강연, 무역과 환경의 연계 정책에 대해 환경처의 김지대 서기관이 강연, 산·학·연과 정부의 통합된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 전자부품등록센터 창립초회 개최

본회는 11월 3일 전자부품등록협의회 창립 총회를 갖고 동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삼성전관(주) 윤중용 대표이사를 선출한데 이어,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전자부품산업협의회 엄길용 회장(오리온전기(주) 대표이사) 등 관련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부품등록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형명등록 업무를 개시했다.

전자부품 형명등록 업무란, 세계적으로 특정 전자부품에 대해 공통의 형명을 부여[WTDS : World Wide Type Designation System] 해 이를 등록함으로써, 동전자부품의 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공급의 적정화와 그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써, 현재까지는 미국, 유럽, 일본에만 등록기관이 설치되어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등에 가서 등록을 해 왔었다.

따라서, 본회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 등록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미국의 JEDEC/EIA, 유럽의 Pro-Electron/EECA, 일본의 EDEREC/EIAJ 기관들과 협조하여 이번에 전자부품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동센터는 관련업계 중심으로 전자부품등록협의회 산하에 등록관리(위)와 표준화(위)를 두고, 센터에서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자부품등록센터에서는 우선 음극선관 및 음극선관용 유리의 형명등록업무를 개시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모든 전자부품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자업계, 공업발전기금으로 원격제어 진단 X-Ray 장치 등 25개 신제품 및 부품 개발

본회는 지난 11월 2일 전자산업 분야의 공업발전기금 심의회에서 원격제어 진단 X-Ray 장치 등 25개의 신제품 및 부품의 개발을 확인하고 이번에 130억원의 공업발전기금을 44개 사에 개발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공업발전기금 지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새로 개발된 제품으로 모두 25개 품목으로서 그 가운데 전자기기로는 동아 X선이 개발한 원격제어 진단 X선장치, 상운이 개발한 Murcuri PCI 보드, 크로스엔지니어링이 개발한 문서인식장치 등 13개 품목이며 전자부품 및 소재로는 정화의 대형 TV용 Double Focus Pack, 삼우전자정밀의 CATV용 RF코넥터, 세일반도체의 고감도 적외선 센서, 한독전자 신일가스켓이 개발한 초저음 Car Speaker 등 12개 품목이다.

이번에 신제품을 개발한 25개 중소 중견 기업들은 '92년부터 약 2년 10개월에 걸쳐 총 86억원의 연구개발비(공발기금 지원 약 : 42억원)를 투입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금년에 약 1,700만불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96년에 4,900만불의 수입대체와 1,400만불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총 225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로 25개사에 62억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44개사에 130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32억원은 오는 12월초에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2차 지원에는 59개사로부터 220억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44개사에 130억원을 지원하게 됨으로서 신청서 지원 비율은 74%였다.

본회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하고 개발한 신제품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전시, 홍보 등을 통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아갈 계획이다.

---

### 폐가전품 회수 · 위탁처리 사업 활발히 전개

---

본회는 지난 8월 지역별로 재활용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해 폐가전품 회수 · 위탁처리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지난 2개월간은 준비단계로 사업이 지연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으나 이달부터는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반설비가 본격 가동돼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가 파악한 지역별 회수 ·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서울 강동지역 위탁처리업체로 선정된 대림자원은 중간집하장에 파쇄설비를 구입, 가동에 들어갔고 처리장에 소각로를 설치했으며 수거 차량 6대를 구입 주 2~3회 순회 수거하고 있다.

서울 강서지역 위탁처리업체인 나래환경은 김포군 검단면에 재활용단지를 확보했고 소각로도 설치완료했으며 수거차량 16대를 동원, 매주 3회 정기 순회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 남부 · 서울 강남지역 위탁사업체인 대림상사도 사업장을 설치하고 파쇄설비를 구입할 예정이며 인천지역 위탁사업체인 중앙자원

은 사업장을 확보하고 파쇄 · 압축기를 설치해 중간처리할 예정이다.

충청권역 지정업체인 일월산업도 중간집하장을 설치해 가전사 물류센터에 임시환적장을 이용해 수거하고 있으며 영남권 위탁업체인 한진슈레다는 이미 대형 재활용 설비를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고 대구에 이어 부산 · 울산 · 창원 등에 영업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호남지역 지정업체인 대지산업도 중간 처리장을 확보하고 대형파쇄기 · 절단기 등 최신설비를 일본에서 도입해 설치중이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회수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두달동안 8개 위탁처리업체가 회수한 폐가전품은 세탁기 1만 4,677대, 냉장고 1만 9,152대, TV 530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가전품 회수 · 처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소비자 · 판매상 · 제조업체 ·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각층의 애정과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

### 세계 각국의 전자정보산업 진흥정책 조사 보고서 발간

---

본회는 향후 2000년대에는 우리 전자정보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정보통신 산업으로 고도화되어야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전자정보산업 진흥정책』을 일제히 조사해 기업의 경영 및 정부의 정책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이상원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정부, 학계, 연구소, 기업 등의 전문가 15명을 조사 편집위원으로 위촉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대만 등 20여개국을 대상으로 87종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해 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80년대 이전까지 방대한 국내수요 특히, 관공수요를 바탕으로 정부의 간접적인 연구개발지원 중심의 정책을 펴오다가 근래에 들어와서는 초고속반도체(VHSIC), 전략 정보처리 시스템 등에 대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MCC(Micro Electronics & Computer Technology Corporation) 등 기업 공동의 연구개발지원 체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90년대 즉, 최근에 들어와서는 고성능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요창출을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추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 및 방송 사업에 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전자공업진흥법, 정보처리촉진법 등을 제정해 연구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전자정보산업의 진흥정책을 펴 나오면서 초고집적 반도체(VLSI), 5세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자동차 시스템, 상호통신 컴퓨터, 초전도체로 등 대형 연구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일본전자계산기(주)(JECC)를 설립해 국산 컴퓨터에 대한 렌탈 자금 지원 등으로 수요를 창출해 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행정정보화, 교육정보화 등 공공 부문의 정보화 투자확대 및 민간의 정보화를 유인하기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 제도 설치, 지역정보화를 위한 뉴미디어시티 구상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보산업의 수요 증대를 도모하고 정보처리 촉진법을 강화해 소프트웨어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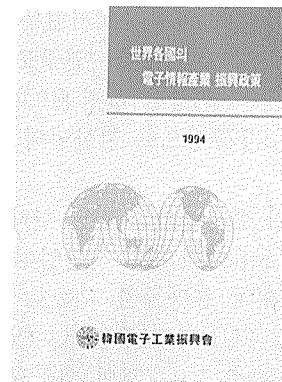
한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각국별로 전자정보산업의 진흥정책을 펴 나가면서 유럽공동체(EU)로서 전략정보기술 연구개발 사업(ESPRIT), 첨단통신기술개발(RACE), 차세대 반도체 개발(JESSI) 등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전자정보전송 계획(DOCDEL), 텔레마팅 등의 사업으로 지

역내 정보통신의 원활한 사업을 펴 나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인 대만은 대규모 전자연구소(ERSO), 정보산업 진흥연구소(III) 등의 설립과 과학연구 생산단지 조성, 정보처리 2000년 계획 수립,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정보산업 진흥체제를 구축했고 싱가폴은 국가정보화 사업의 추진, 그리고 외국의 정보통신 기업 유치 등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정보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고도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쟁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시장 조성을 위해 정보화 지원사업을 대폭적으로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도 정보화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 부문의 정보화 촉진 및 민간의 정보화 투자환경을 조성해 전자정보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그리고 S/W 생산단지 조성 및 연구소 확충 등으로 중소기업형 정보산업의 육성과 함께 정보처리 산업의 자금 및 세제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본회가 발간한 '한국의 전자공업'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산업 생산액은 272억 달러로 세계 6위의 생산대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가정용기기와 부품이 각각 62억 달러, 138억 달러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산업용기기는 72억 달러로 11위를 차지해 산업용기기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는 수출이 237억 3,9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8.9%를, 부가가치생산은 7조 7,410억원으로 제조업 전체의 12.3%를 각각 차지했다.

한편 수입은 지난 한해동안 144억 700만 달러어치가 수입됐는데 이중 부품이 전체의 53%인 76억 4,600만 달러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39.9%인 57억 4,600만 달러에 달해 주요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92년 기준 연구개발 투자가 1조 2,163억원으로 전산업의 33% 이상을 차지했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도 4.44%로 전산업의 1.80%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아 전산업의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665개로 전산업의 39%를, 연구조합은 28개 기관으로 4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구개발 인력도 1만 8,777명으로 전산업의 37%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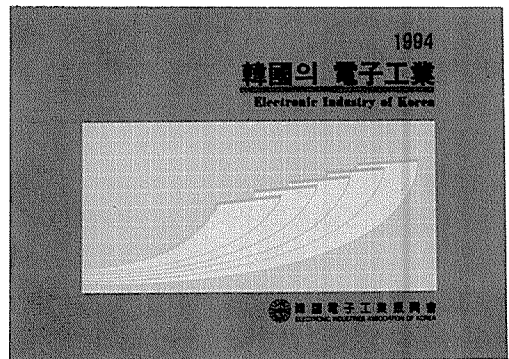
기술개발의 성과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특허 출원이 1만 6,684건으로 전산업의 45.7%를 차지했으며 외국 유명규격 획득도 ISO 9000 시리즈 53건, UL마크 786건, CSA 97건, IWS 94건 등 총 1,077건의 외국규격을 획득했다.

국제협력도 크게 활기를 띠어 작년말까지 외국인투자가 613건, 14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4%, 13%를 차지했으며 기술도입은 2,345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해외투자는 총 464건으로 이중 단독투자가 265건, 합작투자가 199건으로 단독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가정용기기가 149건, 산업용기기가 83건, 부품류가 204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말 현재 전자공업 사업체수는 7,879개사로 전체사업체수의 22.2%를 차지했고 고용인원은 46만 7,000명으로 제조업중 10.0%의 비중을 차지했다.



###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 본회 회의실에서 모니터 표준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용 Radial Topping Type Tact Swith 표준화를 협의.

**전** 자부품산업협의회는 음극선관 관련 규격류 표준화를 경북 구미에서 개최하고 CRT 형명 등 6개 규격 표준화를 재검토하기로.

**코** 넥터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본 회 회의실에서 (주)우영 등 6개사가 참석, 회의를 개최하고 FPC코넥터 표준화를 협의.

### CATV기기 산업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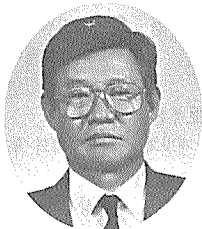
**통** 협의회는 지난 10월 18일 팔레스 호텔에서 나우정밀 이용규 사장 등 17명이 참석, CATV용 가입자 컨버터 공급관련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컨버터 공급에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을 점검.

### 통신산업협의회

**통** 신산업협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이동전화기 업계회의를 팔레스 호텔에서 금성통신 등 10명이 참석, 개최하고 이동전화기의 기술기준확인 증명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체신부의 개선(안)이 2년이나 동제도를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결론. 이의 폐지를 추진키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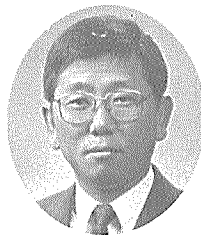
##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주) 알 · 에프 · 하이텍



대표: 송보영  
 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7동 379-71 대광빌딩 301호  
 전화번호: (02) 690-5715  
 자본금: 1억원  
 설립일자: 1989. 4. 12  
 종업원수: 30명  
 주생산품목: RF Micro Wave, Mixer, RF Transformer, Amplifier 등

(주) 한국 멘토



대표: 강창록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빌딩 2104호  
 전화번호: (02) 551-3434  
 자본금: 5억원  
 설립일자: 19093. 9. 17  
 종업원수: 17명  
 주생산품목: 설계 자동화 S/W, 설계용영(컨설팅) 등